

# 제주의 돌은 무엇인가? 권담과 권당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이 문 호

제주섬에서 돌은 모든 경계(境界, Boundary)셋(Set)의 門(On-Off Gate)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境界인 포구에도, 현무암 발달에도 이승과 저승의 境界인 산담(墓牆)에도 안(內)과 밖(外)을 이어주는 신문(神門)도 門입니다. 사람들은 발달안에서 경계 돌을 쌓아 농사를 짓고 돌로 원담을 바다에 쌓아 고기를 잡고 돌로 우영 팟 주위를 둘러 우갯돌안 집에 살면서 올레(Olleh) 정낭門을 열고 닫으며 살아갑니다.

돌담(石)門 안에서 태어나 살아가 돌담門 안으로 죽고 가는 삶이 제주 사람들이 지닌 운명입니다. 제주에 돌은 제주인의 ‘빠’이고, ‘살’입니다. 한 마디로 죽은 자들은 묘 산담의 신문(神門, Olleh)안에 살고 산 자들은 초가지붕의 문(門, Olleh)안에 삽니다. 두 공간 연결체가 올레(Olleh)입니다.

제주 사람의 올레(Olleh)는 거꾸로 읽으면 Hello로 삶과 죽음이 같은 공간 평면에 존재하지만 경계(境界, Boundary)만 달리하는 철학의 목소리가 올레의 몸짓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주는 曲線의 나라입니다. 오름도 곡선이고, 발달도 곡선이고, 초가지붕도 곡선입니다. 직선이 인간이 만든 선이라면, 곡선은 神이 만든 선(線)입니다. 천체(天體), 지구, 사람의 몸까지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곡선으로 이뤄진 물체를 보거나 만질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휴대폰도 네모진 곡선이 그렇습니다.

제주섬은 유선형 타원곡선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섬(島)의 배(Ship)모양입니다. 삼성이 제주도 모형을 회사 Logo로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2,000km 흑룡만리(黑龍萬里)곡선 밭 담은 영혼이 바람이 되어 타고 다니는 영혼의 길입니다..



△ 타원곡선 제주도



△ 타원곡선 삼성 Logo

제주에서 올레 담, 돌담, 장담 등 모두 곡선 돌담입니다. 돌담은 밭이나 집 울타리 경계를 표시하면서 소나 말의 침범을 막고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주에서 “돌(石)”의 삼촌(Uncle)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돌을 쌓았습니다. 제주 바람은 연 평균 초속 4.8m/s로 늘 불니다. 돌담은 Random하게 열키설키 쌓아지고 돌 사이의 틈새 돌트멍(Window)로 인해 바람이 불고 지나지만 돌담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돌 각각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돌이 이웃과 의지(依支)하면서 서로 버티는 상생(相生, Reciprocal Cooperation)과 돌담이 연결체의 대칭(Symmetry)때문입니다. 이것은 돌과 돌이 ‘수놓음’ Networks인데, 제주 특유의 사회관습 권당(Social Custom Family Networks)도 돌의 수놓음에서 왔습니다. 수놓음(手積)은 ‘손들을 놀다’의 뜻이고 놀다는 ‘쌓다’로 손들을 쌓아 서로 도와 가면서 농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은 보리놀, 출 놀 등으로 쓰이며 보리나 소뿔을 원기둥으로 쌓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권돌’은 고인돌에서 비롯됐는데, 순 우리말인 고인돌은 고대 부족 국가 지배계층의 무덤 또는 제단을 의미하며, 이 단어의 유래는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권돌(支石)’ 또는 ‘고인’ 돌에서 왔는데, 돌을 쌓으면 ‘돌담’이 되고, 밑받침 되는 돌은 ‘권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음 돌을 다시 얹으면 ‘권담(礎牆)’이 되고, 돌과 돌의 ‘수놓음’ (Neighbor Cooperation Culture)입니다. ‘권담(礎牆)’은 제주인의 관습상 발음 변화(口語體)가 되면 권당이 되며, 권당은 제주인의 돌담문화에서 꽃 핀 제주 특유의 수놓음 문화(文化)의 연결 Networks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권당에 그렇게 집착하는 까닭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웃간 촌락내혼(村落內婚)으로 연대(連帶)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권당의 탄생배경은 제주의 자연 환경과 국가 사회적 현상 때문으로 제주는 삼재도(三災島)로 수재(水災), 풍재(風災), 한재(旱災)로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영조(1739년)과 정조 때 심했습니다. 김만덕은 굶어 죽는 백성을 위해 구휼을 했습니다. 흉년을 이기지 못해 물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제주도민이 출국 금지령 200년간(1629-1823) 내려졌고, 몽고 원나라 제주지배 100년(1273-1373)과, 1948년 4·3 사건 등입니다. 따라서 항상 바람부는 제주에서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고 돕는 권당문화 탄생 배경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늘 부는 바람은 24시간 제주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 바람의 언어 “셔?”

제주에서 바람은  
 밤낮을  
 오고  
 가면서  
 ‘셔?’,  
 ‘셔?’  
 안부를 묻는다.

제주 사람들도 바람의 입말(口語)을 알아서

한지 읊‘셔’  
 놀당 갑‘셔’  
 끝말  
 읊 ‘셔’  
 갑 ‘셔’  
 돌이 더해지면  
 ‘셔’+‘셔’=‘셔?’

## 권담

권돌(支石) 하나에

돌 돌

살을 붙여가면

수놓어진(手積) 권 담(礎牆)

산 바람이

권 담(牆) 돌 트멍 숨 구멍을  
 넘어서면 권당(Neighbor Family  
 Networks)